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 개편을 통한 동·하계 전력수급 안정 기여



신경휴
KEPCO 마케팅처 요금제도팀 부장

1. 개황

한전은 국제에너지가격 및 환율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영향으로 2008년 이후 5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물가를 중시하는 정부 정책 반영으로 전기요금이 원가보다도 낮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

로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이 전기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유류, 가스 등에서 전기로의 대체소비를 급증시켜 경제성장률보다도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부와 한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였다.

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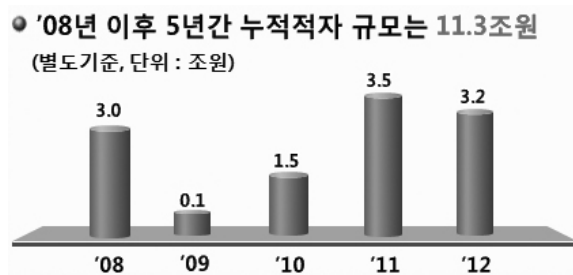
이번 요금 조정은 전기요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급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여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다양한 선택요금제 도입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1기 용량에 조금 모자라는 약 80만kW의 연간 최대전력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원전 부품 비리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발전회사에 의한 비정상적인 발전기 정지로 증가한 발전비용은 모두 발전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력시장운영규정에 따라, 원전 부품 비리로 증가한 발전비용 약 9,600억 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두 부담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았다.

종별 조정률은 원가회수율 및 소비자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용도별로 차등 인상하였다. 전력소비가 많은 일반용(을)과 산업용은 평균보다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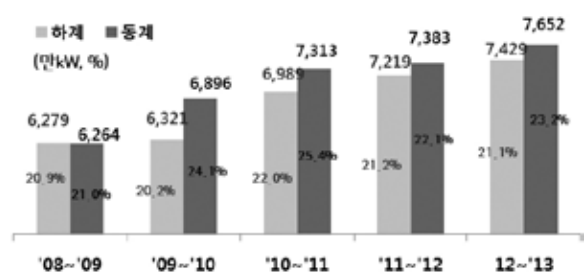
게 인상하고, 어려운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교육용은 동결(초·중·고교는 2% 인하)하였다. 또한, 일반용(갑)과 농사용 요금은 평균보다 낮게 인상하였으며, 주택용 역시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였다.

산업용 고객의 경우 최근 높은 요금 인상으로 다소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산업용 요금은 제조업 지원을 위해 장기간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해 오며 따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가 확산되었고, 이에 적정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요청되었다. 특히 2001년 이후 전체고객의 0.2%를 점유하는 산업용(을) 고객의 원가부족액은 16.4조 원으로 전체 원가부족액 39.7조 원의 41%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55%를 점유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였다.

한편, 최근 평균기온 상승 및 발전기 예방정비 증가로 공급예비율이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는 6



[그림 1] 한전의 누적적자 현황



[그림 2] 피크 대비 냉·난방 수요 추이

[표 1] 종별 조정률 현황

구분	평균	주택	일반			산업			교육			농사	가로	심야
			갑	을	계	갑	을	계	갑	을	계			
조정률(%)	5.4	2.7	5.2	6.4	5.8	6.4	6.4	6.4	-2.0	3.2	-	3.0	5.4	5.4



[그림 3] 산업용(을) 원가부족액 추이

월을 하계로 편입하고, 부하가 높은 하계 및 춘·추계의 10~11시를 최대부하 시간대로 편입하여 전력 수요패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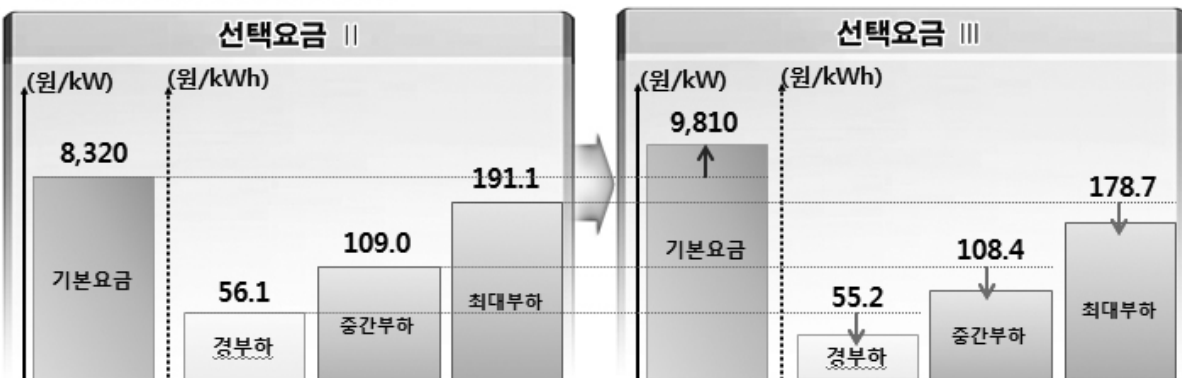
아울러 AMI 보급 확대 등으로 고객의 부하패턴을 반영한 요금설계가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선택요금제가 신설·확대되었다. 일반용(을)·산업용(을) 고압A 고객 중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전력사용량이

많고 부하 이전이 용이하지 않은 업종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이 높고, 주·야간 요금 차등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택요금 Ⅲ을 신설하였으며, 올해 동계 및 하계에 시범 운영하였던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I (CPP 요금제)에 대해 고객의 연중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부하관리를 유도하였다. 또한 일반용(을)·산업용(을) 고압B·C 고객의 자가발전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설치 유도를 위해 하계 및 춘·추계에 최대부하 시간대를 3시간으로

[표 2] 하계 기간 변경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행	겨울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변경	겨울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 일반용·산업용 고압A 선택Ⅲ 신설



[그림 4] 일반용·산업용 고압A 선택요금Ⅲ 신설 현황

축소하고,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를 신설하였다.

3. 향후 계획

향후 전기요금체계의 개선과제로서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확대 및 전압별 요금제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주택용 누진제는 이미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누진 단계 및 누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전자식 계량기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요관리 효과를 제고하고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전압별 요금제로 개편하기 위해 종별 요금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기요금 체계개선을 통해 고객들의 효율 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